

The Call to God's Remnant 남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12th March 2017
(Haggai 1:1-15; Matthew 6:25-34)

There is a conviction, shared by various writers, that history is a series of key moments in the otherwise undistinguished flow of human life. According to this view, years may go by with little of importance happening. But suddenly there will be a crisis. A challenge will emerge, and the nature of the next period of history will be determined by how the leaders of the day react to that challenge. Hitler's invasion of Danzig (now Gdansk in Poland) on the last days of August 1939 was one such moment. Would Great Britain go to war as she had threatened to do? Or would Hitler be allowed to continue in his announced course of aggression? That Britain did go to war marked out the course of Western history for decades. Maybe 11 September 2001 with the destruction of the Twin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re in New York by terrorists might be a key moment for the first part of this century?

역사란 중요한 순간의 연속된 기록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그저 구분되지 않은 흐름이라는 신념이 여러 필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월은 작고 중요한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지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난관에 직면하고 역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그때의 지도자들이 그 난문을 헤쳐나갔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히틀러의 1939년 8월의 다치히의 침범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대영제국에 전쟁에 참여하도록 협박받았을 때, 참여했을까요? 혹은 히틀러에게 그가 발표했던 일련의 침략행위가 계속 허락되었을까요? 영국은 그 전쟁에 참여했고 수십년간 서구 역사에 그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아마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의 붕괴는 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첫 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The year 520BC was such a key moment. It would not appear that way to most secular historians, but it was important enough for God to have sent a prophet to deal with it and to record what happened in the Word of God. In 538BC the Persian emperor Cyrus issued a decree permitting the Jewish exiles in Babylon to return to Jerusalem to rebuild the temple (Ezra 1:2-4). In response to this decree, almost 50,000 people return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ewly appointed governor of Judah, Zerubbabel, and Joshua, the high priest. Arriving back in Jerusalem in 536 BC they cleared the temple court of rubble and replaced the altar of burnt offerings on its base, so making it possible for the daily sacrifices to begin again. By spring of the following year they had laid the foundations of the temple.

주전 520년이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믿음없는 역사가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사를 보내어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충분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주전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에스라 1:2-40). 이 명령에 따른 반응으로, 거의 5만명의 사람들이 유다의 새로 임명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호수아의 통치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한 후 날마다의 번제가 다시 가능하도록 거친 돌들을 성전 마당에서 치우고, 번제를 위한 제단의 밑동을 다시 놓았습니다. 다음 해 봄까지 그들은 성전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But then troubles began. The people experienced hostility from various neighbouring tribes, especially the Samaritans. Moreover, Cyrus died in battle, and his successor, Ahasuerus, was pushed to stop the work. When the work ceased, the people turned to private affairs – building their own houses – and gradually became used to worshipping among the ruins of the once great temple. Desire to rebuild waned and 15 years passed. Then in 520BC God sent the prophet Haggai with his challenge to the people to get on with God's work and build the temple. That they listened to Haggai and started rebuilding wa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ir history, as important in its own way as the building of the temple by Solomon in the first place or the fall of Jerusalem to Babylon. Haggai is one of the three last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period, the prophets of the restoration: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By the time these men came on the scene gone was the glory of the former kingdom and temple and gone was the great population. All that was left was the rubble of Jerusalem, the remnant of the people, and the task of restoration. Two historical

books – Ezra and Nehemiah – help us to understand this period. Haggai and Zechariah came rather early in the period. Malachi came about 100 years later, in years of decline.

그러나 다시 문제가 닦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양한 이웃 부족으로 부터, 특히 사마리아 부족으로 부터 적대적 행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한 것은 바사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의 계승자, 아하수에로스는 그 일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재건축이 중단되자 사람들은 개인적 작업 –그들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 돌입했고, 점차 옛날의 위대한 성전의 잔해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갈망은 식어갔고 15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 주전 520 년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 사람들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사역을 착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재건축을 시작한 것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의 멸망한 것이나 솔로몬이 첫번째 성전을 건축했던것 만큼 중요한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개는 구약의 세명의 마지막 선지자들, 회복의 선지자(학개, 스가랴, 말라기)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당시 이 세사람들은 과거의 왕국과 성전의 영광, 엄청난 인구가 사라진 현장에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돌맹이들, 남은자들, 회복의 일이 전부였습니다. 두 역사적 저서 –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 시대보다 좀 일찍 왔습니다. 말라키는 그후 100 년후인 후퇴의 시기에 왔습니다.

1. The Right People, the Right Place, the Right Work and the Right Reasons.

In our sermons on the Minor Prophets so far, we have become used to prophetic warnings of God’s judgment on a sinful and self-righteous people. But the last 3 prophets spoke to a different situation. Their audience was the remnant. And so, in Haggai, we are dealing with the right people, select people whose devotion to and zeal for God were evident. This is summed up in the spiritual meaning of the word “remnant”. It means that they were not the entire body of the Jewish people at this time. When Cyrus issued his decree permitting the Jews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nd rebuild the temple, most of the exiled Jews remained in Babylon where they had settled down and prospered during the exile period. It was only these few 42,360 (plus 7,337 servants and 200 singers) who actually left Babylon and made the long journey back to Judah with Zerubbabel (Ezra 2). As one commentator says, “The “remnant” to whom the message was given was composed of Israelites who were distinguished by special devotion to the Lord....They had been separated for a purpose of great importance, for the direct line of God’s dealings was to continue with them to the coming of Christ”.

소수의 선지자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성이 많고 자기 의에 가득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선지자는 다른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청중은 남은자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개에서 올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전념이 분명한 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라는 단어의 영적 의미를 축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바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한 명령을 내렸을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들이 포로기간동안 정착해서 번영한 바벨론 땅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 유다로 돌아오는 긴 여행을 한 사람들은 겨우 42,360 명 (7337 명의 하인들과 200 명의 가수들을 포함하여)이었습니다. 한 주석가가 말했던 것처럼, “그 메시지를 받은 “남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헌신으로 이스라엘의구별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그들은 하나님이 직속으로 다루실 라인으로, 다시오실 예수와 그들이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목적을 위해 분리된 자들입니다”.

Second, the people to whom God directs his word through Haggai were in the right place. They were in Jerusalem at the call of God and not in Babylon among those who had preferred their stable and comfortable way of life to the hardships of a return to the ruined city of Jerusalem. In the Old Testament period God had placed a special value on Jerusalem and had required that the sacrifices for sin be made there and not elsewhere. He had punished the people by exile, but he had also promised to bring them back after the years of exile were finished. The people who had returned with Zerubbabel and Joshua were sensitive to these promises and wanted to be in the place of God’s blessing. When the call to return came, they left Babylon and got back to Jerusalem as soon as possible.

두번째로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받은 그들은 옳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생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을 선호했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특별한 가치를 두었고 죄의 댓가를 위한 번제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곳에서 행해지기를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 벌하셨지만 또한 포로의 날들이 끝난후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약속에 민감히 반응한 이들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라는 부름이 왔을때,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능한한 빨리 돌아갔습니다.

Since the coming of Jesus Christ, God has sent his people into the whole world with the gospel. “You will be my witnesses.....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Acts 1:8). But God does not send the individual believer into “all the world”. He sends him to a particular place and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where he is to live for Christ and share the gospel. In other words, our response to God as individuals must be as related to a place as was God’s call to the Jewish remnant. If we are to be the right people, we must be in the right place also. We need to ask where, in what city and in what church, does God want me to serve Christ and his kingdom.

다시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복음과 함께 전 세계로 보내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니...땅끝까지 가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행 1:8). 그러나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신자를 “전 세계로”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는 특정한 지역으로,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별적 반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을 부르신것처럼, 반드시 어떤 장소와 연관이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옳바른 장소에 있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어느 도시인지, 어느 교회인지 물어야 합니다.

Third, the remnant to whom Haggai spoke also wanted to be about the right work. There were many things they needed to do. They needed to provide homes for their families. They needed to make a living, in their case largely through farming. These were necessary and valid pursuits. But in addition, and of utmost importance, the people also wanted to rebuild the temple, which is what God had put into the heart of Cyrus to decree. As Ezra tells it, the first thing the people did when they arrived in Jerusalem was to take a freewill offering toward the rebuilding of the house of God – and it was a substantial offering used to pay masons and carpenters and to buy and transport cedar logs from Lebanon. And by the second year they had progressed as far as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great temple. These people clearly wanted to serve God and put his work above their own interests.

세번째로 학개가 말했던 그 남은자들은 옳은 사역에 연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집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우, 당시에는 주로 농사를 지음으로써 생활을 꾸려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필요하고 가치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바사왕의 가슴에 심어 명령하게한 그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의 재건을 위한 자유의지의 헌금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석수들이나 목수들에게 지불되거나, 레바논에서 삼목재를 사서 운반하기위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되었던 상당한 금액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에는 그들은 대성전의 기초를 놓을 정도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고, 또한 그들은 그 일을 그들의 개인 관심사위에 두었습니다.

Finally, the people were working for the right reasons. We could imagine them rebuilding the temple to assert themselves with some sense of distorted national pride: “The Babylonians destroyed our temple – but we’ll show them who will have the last word. We’ll build it again”. We could imagine them attempting to construct a monument to their own fierce independence, like the Tower of Babel. But these were not their motivations. So far as we are told, their sole desire was to please God.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옳은 이유**를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들이 일그러진 국가적 자존심을 옹호하기 위해 그 성전을 짓는다고 상상할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사람들이 우리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누가 마지막 말을 하는지 보여 줄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지을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바벨탑과 같은 그들의 강렬한 독립을 상징하는 기념물 건축을 시도한 것이라고 상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들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듣는것으로 볼때, 그들의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So, the people to whom the prophet Haggai spoke were the right people, living in the right place, trying to do the right work for the right reasons. Yet the years had gone by, and they were sufficiently caught up in their own pursuits to let the work for which they had come to Jerusalem slide. They were neglecting to build the temple and were living for themselves rather than for God’s glory. Many people in our day are like that. They are not unbelievers. These people want to know the will of God and do it. At least they did at one time – perhaps when they were in a church youth group or in a Christian Union group during their university years. Perhaps they were zealous for God in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their conversion. But life has moved on. Now there is a job or a wife or children (or any one of a dozen other things) to think about, and somehow they have let the work of God slide. They have left the work to younger or older or newer or merely other Christians. The word of God by Haggai comes to such people – to you, if you are one of them. God says: What is the condition of my house? What is the condition of my work in your home, your church, your neighbourhood, your city, your land? He says: What are you doing to fulfil the purpose for which you have been set apart by Jesus Christ?

그래서 학개가 말하고 있던 사람들은 **옳은 이유**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며 **옳은 자리**에 살고 있었던 **옳은 사람들**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흘러,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목적추구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왔을때의 사역을 등한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삶을 꾸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사역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한번은-아마도 그들이 청년부에 있었거나 혹은 대학시절 기독교 연합에 있었던 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개종되어 즉시 수년간 하나님께 열정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고려해야할 직업 혹은 아내와 아이들(혹 열두가지 다른 일들중 하나)이 생겼고 그리하여 어떻게 하다보니 하나님의 일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어리거나, 더 나이 많거나, 혹은 더 새로 오거나 아니면 그저 다른 믿는자에게 그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여러분이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집의 조건이 무엇이냐? 너의 가정에서, 너의 교회에서, 너의 이웃에게, 너의 도시 혹은 너의 땅에서 나의 일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목적을 채우려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2.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In a certain sense there is only one message in this book: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It is found twice in chapter 1 (vv.5,7) and three times in chapter 2 (vv.15,18). In chapter 1 it comes about like this. Apparently, the people had not only ceased work on the temple, they had also done what many Christians who become lazy in the Lord’s work also do. They had begun to make excuses. This is a clue to underlying guilt. The people said, “The time has not yet come for the Lord’s house to be built” (v.2).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that? “Well, of course every Christian is to be a witness where he lives and works. But witnessing to my co-workers is a delicate business. I don’t think it’s time to tell them about Jesus”. “I know I should tithe, but I can’t do it this year – I have too many family obligations”. “I’m flattered that you think my talents might help in that particular area of the church’s work, but I don’t have time to serve just now. Perhaps later when the pressures of my job or study let up a bit or when I retire”.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는 오직 한가지 메세지가 있습니다: “너의 행실을 주의깊게 생각해보라”. 이 말씀은 1장에서 두번(5,7 절), 2장에서는 세번(15,18 절)이나 찾을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얼핏보기에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멈춘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데 게을러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변명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는 죄의식이 깔려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2 절).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번 그것을 들어야 합니까? “글쎄요, 당연히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가 살고 일하는 곳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직장동료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 할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일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할수 없습니다-제겐 너무 많은 가족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재능이 교회의 어느 사역의 영역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당신의 생각이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제 직업이나 공부가 주는 압박이 조금 덜할때 아니면 제가 은퇴했을때...”.

In the first chapter of Haggai, God challenges this excuse and the inactivity behind it with two arguments. First, “Is it a time for you yourselves to be living in your panelled houses, while this house remains a ruin?” (v.4). What a biting argument! God was accusing the people of having plenty of time for themselves while pleading a lack of time for God. It was an accusation of having plenty of time and money to spend on their own comfort and pleasures while claiming not to have enough for God’s service. The people were prospering. How could it be, then, that they were unable to get on with the work God had given them to do? Surely as we read this, we can’t help but think of the evangelical church in our own nation – it fits the pattern of the Jewish remnant perfectly. Evangelicals are orthodox, Gospel-centred- in that sense they are the right people. They are in the right place, attending good, Bible-believing fellowships. They are trying to do the right things – they want to share the gospel and do works honouring God. They are even trying to do it for the right reasons – that is, they really want to please God rather than man and see Christ glorified. But something is wrong. Their intentions do not come to fruition, and the reason is their failure to put God first. Instead of having God first, they put affluence, material prosperity first.

하나님은 학개의 첫장에서 두가지 논리로 그 변명과 소극성에 도전장을 보냅니다. 첫째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는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4 절). 얼마나 신랄한 비평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정녕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부족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쓸수 있는 많은 돈과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께 봉사할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들은 더 잘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하도록 주어진 하나님 일을 행할수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에 있는 전도지향적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자의 형태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전도주의는 정통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이런 점에서 그들은 옳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옳은 위치에서 선한 성경을 믿는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옳은 이유까지 가지고 이를 행합니다-그 이유란 인간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예수님께 영광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결실맺지 못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것에 대한 실패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하는 대신 부와 물질적 풍요를 우선으로 놓은 것입니다.

The second argument with which Haggai challenges the people’s inactivity is an observation on what has actually transpired in their lives. They had put other things before God, and God, who will have no other gods before him (Exodus 20:3), sent leanness. This is where the reference to giving careful thought comes in, as we see in vv.5-6 and 7,9-11. I do not know any passage in the Bible that better describes the feverish yet ineffective activity of our own age. Haggai’s first remark (in v.6) is that the people had “planted much” but had “harvested little”. Since farming was their chief occupation it is the equivalent of saying that they were always working. They were like the people in our day who take on extra jobs, who work through lunch and stay back late or take work home with them, who are always rushing around to get ahead. Yet little had come of it. They seemed to be on a treadmill. 학개가 사람들의 나태함에 도전장을 주는 두번째 포인트는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배출하고 있는냐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아, 그 분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는(출 20:3) 그 하나님은 그들을 여위게 합니다. 5,6 절 그리고 7,9-11 절에서 보듯이, 여기에 행위를 주의깊게 살피라는 인용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어느 말씀에도, 우리가 열을 다하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우리 세대의 행실을 더 잘 묘사한 곳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학개의 첫번째 소견(6 장)은 사람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농사가 그들의 주요한 직업이므로 그들은 언제나 일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는 추가로 직업을 가지고, 점심시간에도 계속 일하고, 늦게 퇴근하거나 집에까지 가져가 일을 하는 등, 늘 앞서가려고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런닝머신위에 올라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Not only were they falling behind in their push to get ahead – a picture of frustration – but they were also dissatisfied, even in the midst of their apparent abundance. A number of phrases speak of this: “You eat, but never have enough. You drink, but never have your fill. You put on clothes, but are not warm. You earn wages, only to put them in a purse with holes in it” (v.6). I do not think this means that there was insufficient food or drink – though the next verses do speak of drought that affected the fields. The people were eating, after all. They were drinking. They did have clothes to wear. But they were not satisfied by these things and therefore always went about with a sense of longing for what was not there. Is this not a picture of our age? More cars, more houses, more food, more computers and mobile phones, more clothes, more vacations.....Yet people are wretchedly unsatisfied. People have everything, but they are miserable. And some of those miserable people are so-called evangelical Christians. What is the cause of this? It is the work of God. God has sent emptiness so that his people might awake from their idolatry and turn back to him. The KJV of Psalm 106:15 says, “He gave them their request (he gave them what they asked for); but sent leanness into their soul”. The last phrase of v. 6, “You earn wages, only to put them in a purse with holes in it”, reminds us that our money is eaten up by taxes and increased government charges and spending on frivolous and wasteful things. What is the solution? It is obedience! It is getting on with what God has given us to do. In the context of Haggai’s situation, it was the command, “Go up into the mountains and bring down timber and build the house, so that I may take pleasure in it and be honoured” (v.8). In our context it is to set spiritual matters first and get on with serving God to the best of our ability. As Jesus said in the Sermon on the Mount, “But seek first his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6:33).

그들은 앞서가려는 그들의 노력에 지칠 뿐만 아니라-좌절의 그림-그들은 또한 그들의 명백한 풍요로움 가운데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성경구절이 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6 절). 저는 이 말씀이 음식이나 마실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비록 그 다음 말씀들에서 그들의 땅에 영향을 미칠 가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요. 그들은 결국 먹습니다. 그들은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언제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쫓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대의 그림 아닙니까?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집,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컴퓨터, 그리고 더 많은 휴대폰, 더 많은 옷들, 더 많은 휴가.... 그러나 사람들은 비참하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소위 말하는 전도주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으로부터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공허함을 주십니다. 시편 106:15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6 절 말씀인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라는 우리의 돈은 세금과 늘어나는 정부의 추징금으로 다 나가서, 하찮고 낭비적인 것들에 결국 쓰이게 된다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개의 상황적 배경에서 볼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3. The Result and God’s Promise

One of the discouragements of Christian ministry is to preach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and be greeted with people who seem disinterested and keep doing what they have been doing all along. But there are times when the Word of God strikes home, and a life is genuinely changed. When that happens in large numbers, you have a revival. From our study of the earlier Minor Prophets, you will recall that the warnings given to the Jewish people before God’s judgment by the

Assyrian and Babylonian invasions generally were ignored – for the most part the people could not have cared less for the prophets’ warnings. It is a joy to see a different kind of response from the people of Judah under Haggai’s ministry. They had been negligent in carrying out God’s work. They had invented flimsy excuses for their inactivity. But they were not basically hostile to God or his commandments, as the people living before the exile had been. They really wanted to please God. So w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m by Haggai, they recognized it as a true word from God and did what he commanded: “.....the whole remnant of the people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their God.....and the people feared the Lord” (v,12).

크리스천 목회를 하면서 낙심되는 한가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들이 하던것들을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강타하는 때가 오고, 삶은 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번 일어나면, 여러분은 소생을 얻습니다. 초기 소수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의 공부는, 앗시리아와 바벨론 사람들의 침입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경고들이 전반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경고들에 신경을 덜 쓰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학개의 사역 아래, 유다 사람들의 여러가지 다른 반응을 보는것은 기쁨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경시했고, 또한 그들의 나태함에 대한 초라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생활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명령들에 적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 의해 전달되었을때 그들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것을 알았고 그 명령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니라”(12 절).

The chapter concludes by telling us that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moved the heart) of the whole remnant of the people and they began work on the temple again (v.14). Indeed, we are told that the people resumed the work on the 24th day of the month (v.15). In light of the fact that verse 1 tells us that Haggai began to preac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about 30 August 520BC), we find that the change came about in about 25 days!

이 1 장 말씀은 여호와가 남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었다”(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했다(14 절)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이 그달 24 일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15 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을 조명해보면, 1 절에서 우리는 학개가 그달 첫째날(주전 520 년 8 월 30 일쯤)에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고, 우리는 그 변화가 약 25 일만에 온것을 알수 있습니다.

I wonder if there is a date like that in your life or if today might possibly become that day. I do not mean the day of your conversion – indeed you may not be able to specify a date for that. I mean the day in which you finally got the priorities of your life straightened out and determined that from that time on you would put God and his work first in everything. You need to do that. You need to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Is my own comfort of greater importance to me than the work of God?” “Am I making increasing efforts to get ahead financially but finding greater and greater disappointment or dissatisfaction in my life?” If the answer is “Yes”, then just turn around and get on with God’s business. Obey him. Put him first in your life. Amen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날짜가 있는지 혹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종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실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우선시되는 것들이 청산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두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확고해진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나만의 편안함이 하나님일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가?” “나는 경제적으로 앞서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내 삶의 실망과 불만족은 더 커져 가는가?” 만약 그 답변이 “네”라면, 그저 되돌아서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십시오.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으십시오. 아멘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